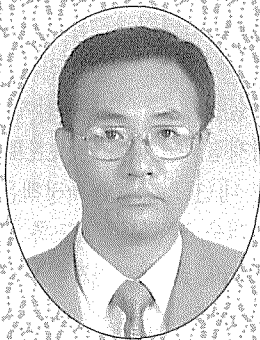


# 건설프로젝트와 나의 제언



정 일 성  
〈한화에너지(주) 건설팀 차장〉

지금은 당사 화력발전소의 증설사업을 위해 복합화력 건설현장에서 공사감독직을 수행한지 3년째가 된다. 지난 6월말에 준공한 1차사업, 가스터어빈 발전시설 10만 KW 3기에 이어 금년에는 2,3차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니 같은 용량의 설비 6기를 역시 6월말까지 준공해야한다. 약 5년 전에 당사가 성공적으로 준공한 20만 BPSD 정유시설(신공장)의 반쪽이는 야경을 수 Km 떨어진 반대편에서 바라보며 퇴근 길에 오를 때면 과거의 희비단편들이 머리를 스치곤 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한사람의 입장이고 보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이미 현실화 되어 있는 거대한 구조체를 바라보면서 무한한 감회와 보람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건설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미흡했던 점들을 되새기며 후회를 금할 수 없게 된다.

신규사업 추진을 결정한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집행되는 각종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특히 석유화학공장의 조성이나 에너지 프로젝트는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일지라도 국책사업의 일환이며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측 사업계획 입안자는 당연히 최적기 생산을 위한 플랜트 준공을 목표로 프로젝트 추진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기법을 전문용역사에 계약이라는 형태로 요구하게 된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라이선서, 컨설턴트, 기본설계사, 상세설계사, 기자재공급사, 건설회사, 운송회사 및 전문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의 계약형태와 기구표로 구성된 사업추진계획을 단계마다 검토하면서 항상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마음이짐이 정말로 중요하구나」하는 것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계약이 되어 2개 조직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경우, 물론 계약 내용이 중요하지만, 자체를 거론하기 이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전체를 보면서도 일관된 주관을 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마음 자세는 반드시 사업주측 프로젝트 담당자 만이 갖는 전유물은 아닐 것이며,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용역사 직원 및 기술자가 다같이 나누어 갖는 일종의 애착어린 공유의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당사가 추진해온 각종 대·소형 프로젝트의 공사를 감독하며 많은 국내의 기술자와 관련 계약자들을 접하여 왔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기술도입이나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성공적인 시운전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트러블과 대책회의를 경험하면서 용역을



담당하는 각사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사건건의 중재 노력과 이에 따르는 시간낭비가 관리상 큰 손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지면을 통하여 관련 각 설계사 및 시공사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미 자체 노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 공정관리 시스템에 「고객만족」 개념을 접목시켜 국부적이거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터라도 좋으니 점진적으로 실천했으면 한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의 발효로 인해 국내 용역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국내 전문용역업체들이 대책에 부심하고 ISO 9000, 14000 Series, ASME 인증 등 자체관리 시스템 개발에 많은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하므로 점차 나아지겠으나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실시하는 고객만족운동이 구호로 끝나지 말고 실속있게 실천되어야겠다. 예를 들어, 고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용역사가 제공한 성과품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엇이라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종합적이고도 일관되게 대답해주는 설계사가 국내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이쉽다.

앞으로는 많은 보완이 있어 국내 설계사도 자질 향상 되었으면 한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사업추진기구의 편성으로 효과적인 준공을 꾀하고자 하므로 Turn-Key 방식의 대형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거

의 완벽에 가까운 관리기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계든 건설이든 간에 이른바 관리의 3요소 즉, 보다 짧은 기간에(SCHEDULE), 보다 적은 비용으로(COST), 최대성능(QUALITY)을 구가하는, 그러나 이 3가지가 동시 만족될 수 없는 모순이므로 상호절충하여 최선을 찾는 기법은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민했던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에 앞서 사업주측 마인드(MIND)를 갖고 주인의식 하에서 관리를 대행해야 그 용역사로서도 성공적인 실적이 될 것이다. 그 만의 실속차리기에 급급하면 성과품은 질이 저하됨은 물론이고 관리부재리는 약평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자체의 코스트관리에도 별다른 덕이 없음을 경험으로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관점부터 달리해야 할 것이다.

국내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외 공사와 개념을 달리해온 포인트가 한가지 있다. 「무엇이든 빨리」하는 것이다. 국내의 플랜트 발주처가 거의 그러했듯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짧은 사업추진기간을 설정해 설계와 시공기간을 overlap시켜 최소한의 공사품질로 만족해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일도 향후에는 시정해야 할 일이었지만, 과거에 해외에서 축적한 QA/QC 시스템이 국내에는 왜 그리도 적용되기 힘든지 시공사에도 되물어 볼

일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그간 너무 짧은(TIGHTY) 공사기간에 최소한의 품질관리(MINIMIZED QUALITY CONTROL)를 해왔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도 각종 대형참사가 날때마다 노심초사하는 일종의 공범심리를 갖게 되는 것 같다. 프로젝트 추진상에 요하는 계약방식과 거래처의 양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실시하는 고객만족운동이  
건설현장에서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속있게  
실천되어야 한다.**

관리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겠지만, 사업주측 공사감독의 입장에서면 기자재 납품업체, 설계, 시공 용역업체 및 운송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믿는 가운데 기본 개념만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통제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불신의 골이 깊어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결국 용역사에서 할일까지 자연스럽게 떠맡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므로 담당자에게 간혹 한계선을 제시해 주곤 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거론한다면 구체적인 언급이나 실례를 들 어가면서 꼬집지 않더라도 플랜트 프로젝트는 유난히 외제를 선호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 6, 70년대 국내산업 부흥기에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었겠으나, 이제는 국산화 할 수 있는 수 많은 기자재 품목도 여전히 불안하다며 굳이 마다하는 사례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으며 설계용역 특히 건설관리 및 감리 분야등 소프트웨어도 통합품질보증(TOTAL GUARANTY) 차원에서 너무 쉽게 외국 설계용역사를 선호하여 무언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믿어버리고 또한 실망했던 경험들을 난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당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계약자가 흔히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객만족운동」에 동참하여 기 소지한 기량을 십분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주처측 건설공사 감독자인 나도 관리자의 한사람으로서 적시 정보 소통에 원활하고 현장 운영의 묘를 살려 새로이 맞이하는 프로젝트마다 보다 나은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새해 벽두에 또다시 다짐해 본다. ♣